사·부·대·중

"스님, 약속은 꼭 지키세요"

이귀인
한국석불선양회 회장

석불선양회 순례법회의 사전준비관계로 얼마전 시골의 한 사찰을 방문하였을 때의 일이다. 주지스님께 법문을 요청드리기 위해 종무소에 갔다. 담당직원이 "외출하시고 안계신다. 순례법회 날 주지스님이 다른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나중에 다시 전화해 보라"고 했다. 알았다고 대답하고 차 한잔 마시는데 종무소 옆방에서 인기척 소리가 나더니 스님 한 분이 나오셨다. 얼른 일어나 반배를 올리며 "주지스님 되십니까?" 물으니 "그렇다. 무슨일로 왔느냐?" 하신다. 순간 종무소 직원은 얼른 자리를 피해버렸다. 삼배의 예를 올린 후 순례법회 계획과 법문을 요청드리니 달력을 보면서 "그 날은 다른 일이 없으니 꼭 법문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순례법회날 주지스님을 모시기 위해 종무소에 갔더니 직원이 대뜸 "주지스님께서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 출타하셨다. 총무스님을 모시고 들어가라" 한다. 총무스님이 들어오셔서 잠시동안 사찰 창건설화를 설명하고는 나머지 긴 시간을 사찰불사에 동참해 달라는 말로 일관하였다.

종무소 직원의 태연한 거짓말, 재가불자들과의 법문 약속을 바쁘다는 핑계로 사전 양해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주지스님, 책이나 인터넷에 올라있는 사찰 창건설화를 글자 하나 안틀리게 읊으며 불사 동참을 호소하는 총무스님의 안스러운 모습 등의 삼박자에서 이 사찰의 분위기가 왜 이렇게 을씨년스러운가 그 원인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런 사례를 굳이 밝히는 것은 그 사찰 말고도 여러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였기 때문이다.

스님의 가장 시급하고 바쁜 일이 중생제도 말고 무엇이 또 있으랴. 재가불자들이 "스님, 법문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기 전에, 인기척이 나면 맨발로 뛰어나와 반갑게 맞아주시며 법향을 가득 전해주시는 스님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목탁소리

'자비문중' 이라면서

강 유 신 (취재1부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 노조원들은 13일 11시 조계사에서 천막농성 돌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이날 아침 9시 조계종 호법부는 불법시설물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농성용 천막을 철거해 버렸고, 기자회견은 예정보다 3시간 늦은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렸다.

농성용 천막 철거에 대해 호법부는 조계사 경내에 건축물이 마음대로 세워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총무원이 경찰에 시설물보호 신청을 해 놓은 터라 조계사 내에 농성용 천막을 치는 것은 불법이기도 하다. 법적으로 따진다면 백번 타당한 말이다.

하지만 간과해서 안 될 것이 있다. 보건의료산업 노조원들이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6개 지역병원에서 작게는 100여일, 많게는 1000여일씩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을 당해왔다는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그들은 직장과 청와대, 국회에서 시위를 벌이고 명동성당 등에 도움을 청했었다. 명동성당이 시위장 제공에 난색을 표하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조계사까지 찾아왔다. 부처님 품안에서 도움을 받기위해 온 것이다.

불교계가 생존권을 지키고자 도움을 청하는 그들을 응당 따뜻하게 맞이해야 함은 인지상정이다. 조계종이 시설물을 보호한다는 구차한 이유로 자비심을 포기한다면 또다시 불교계에 질타가 쏟아질 우려가 높다. 이미 불교환경연대, 실천승가회 등 9개 교계 단체는 "비록 보건의료노조가 농성장 사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잘못한 점은 있지만, 생존권을 걸고 투쟁하는 그들의 농성장을 통보도 없이 철거하고 경찰서에 시설보호요청까지 한것은 자비종단 답지 않은 일"이라며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 초겨울 떨고 있는 중생을 보듬어 안아주는 불교다운 아량이 기다려진다.

제도개선 시민위 **국립공원 보존 100대 개혁의제 선정**

사찰 수행권 보장-입장료 철폐-주민보상

스님, 시민, 사회단체대표, 지역주민들이 모인 '국립공원제도개선 시민위원회'가 국립공원 보존을 위한 100대 개혁의제를 선정하고 정부가 관련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립공원제도개선 시민위원회(공동대표 원택스님 이경재 최열, 이하 시민위)는 15일 각계대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립공원 100대 개혁의제 작성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가가 국민의 보건, 휴양,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역사문화유산, 야생 동식물보존 및 보호 등을 제 1원칙으로 하는 100대 개혁의제를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100대 개혁의제는 자연생태계, 역사문화유산, 시설 및 탐방, 법제 행정 재정 개선, 지역사회 주민, 미래를 여는 과제 등으로 세분화되어 △국립공원내 사찰스님의 수행생활보장 △지역주민보상방안 △입장료 철폐 △ 자연공원법 개정 등의 영역별 개선내용이 제시됐다.

시민위는 100대 의제를 추후 열리는 실무회의에서 재논의한 뒤 이를 토대로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워크숍에서 발표된 주제영역별 토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동·식물 보고 지키자"

자연생태계 국립공원에는 또 우리나라 총 서식동물 중 포유동물 75%, 파충 양서류 70%, 조류 71%, 담수어류 71%가 서식하고 있다. 환경부지정 특정 야생동물도 53종 가운데 45종(85%), 천연기념물 53종 37종(70%)을 차지하며 희귀 멸종위기 동물은 1409종 가운데 84종(60%)이 살고 있다.

식물도 총 157과 752속 2,369종으로 우리나라 전체 식물상의 64.3%에 해당한다.

자연식생면적도 373㎢로 전 국토의 0.4%에 해당되나 그 면적의 90% 이상이 국립공원내에 위치한다

국보·보물·사적 등 산재

역사문화유산 국립공원에는 조계종 교구본사 7개, 전통사찰 96개를 비롯한 약 313개 사찰이 소재하고 있다. 313개 사찰과 그 주변에는 국보 41점(56.1%), 보물 73점(65.3%), 사적 및 명승 3개소(66.7%) 등 전체 문화재의 약 16%가 산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문화재의 대부분이 국립박물관 등에 소장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오히려 개발 대상으로

시설 및 탐방 현 공원시설은 1967년 자연공원법을 제정하면서 규정했던 시설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 자연공원법이 공원법으로 바뀌면서 자연공원이 개발의 대상으로 변질돼 오히려 각종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립공원은 우수한 자연자원 및 문화유산을 지정 관리하는 곳이므로 관광지나 도시공원에서 조성하는 문화 체육시설을 축소하고 정비해야 한다.

체계적 관리 급선무

법제·행정·재정 개선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부터 도립, 군립공원까지 포괄하고 있어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저해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정책기능은 변화된 공원관리의 목표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재정의 경우도 1년 관리예산 총액이 약 450억 원이며, 이중 정부출연금은 130억 원에 불과하다.

토지등 국유화 추진

◇국립공원 제도개선시민위원회는 1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립공원 100대 개혁의제 작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역사회 주민 국립공원구역 국유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원구역내 토지에 대한 매입, 신탁, 토지교환 등의 방법으로 국유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 공원구역내 거주주민의 친환경적 생활패턴의 연구와 생활보장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한다. 또 공원운영위 설치 및 공개토론방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공원지정 타당성 검토

미래를 여는 과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신규 국립공원으로 신규 지정하고, 20개 국립공원별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지정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국토 생태축을 연결하고,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만큼 '국립공원의 날' 지정이 요구된다.

김원우 · 김철우 기자

■국립공원 현황

산악형·해안형 등 20곳 공원내 사찰토지 10%

우리나라는 1967년 12월 19일 지리산을 시작으로 전국 20개 지역의 산과 바다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전국 국립공원은 지리산 설악산 치악산 한라산 오대산 속리산 가야산 계룡산 내장산 덕유산 주왕산 북한산 월악산 소백산 월출산 변산반도 등 산악형 국립공원 16개소와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등 해상 · 해안형 3개, 사적형국립공원으로 경주국립공원 등 20여 곳이 지정돼 있다.

16개 산악형 국립공원의 면적은 총 3백82만5천㎢으로 전체 육지면적의 3.8%를 차지한다. 이중 한라산과 태안반도를 제외한 국립공원내 313개 사찰의 토지는 총 31만7천여㎢(9596만 여평)으로 10여%를 차지한다. 공원 내 사찰토지의 80%는 조계종 소유이다.

사찰이 국립공원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가야산이 41.54%(3만3천여㎢), 주왕산이 34.98%(3만 6천 여㎢), 내장산 27.44%(2만1천여㎢), 오대산 19.10%(5만7천여㎢), 월출산 16.07%(6만7천여㎢) 등의 순이다. 국립공원내 사찰 소유 토지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산림, 계곡, 명소나 공원의 주 출입로를 점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공원지역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원우 기자

"불합리한 제도 반드시 개선"

인터뷰 제도개선시민위 대표 원택스님

"현행 국립공원 관련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공원 내에 있는 불교문화유산이 잘 보존되도록 정부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1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립공원 100대 개혁의제 작성을 위한 100인 워크숍'에서 원택스님(국립공원제도개선 시민위원회 공동대표,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국립공원 내 사찰환경과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물론, 자연생태와 역사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의 원칙을 정부가 지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개혁의제 선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스님은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해 국민적 오해와 불신을 받고 있다"며 "사찰소유 토지의 80%인 1억여 평 정도가 국립공원 안에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찰 수행환경과 문화재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현행 관리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앞으로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 공원 내 사찰의 개 · 보수 및 한국전쟁 때 소멸된 사찰과 폐사지 복원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이라고 덧붙였다.

김철우 기자

지리산자락 무주구천동 신비의
다슬기 무농약!
당신의 "간·간·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시죠?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回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무주 구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回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

견 성 체 험

"견성 체험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체험을 포착하기 위해서 점진적인 수행도 뒤따라야 하겠지요(돈수와 점수)."
"아무리 열심히 수행한다고 해도 방법을 모르면 성과는 미약하기 마련, 견성은 노력 없는 경지이기 때문이지요."

은담명상체험수행법

▪ 1단계(해오) :
지식적인 이해의 단계로 2-3일 소요됩니다. 단순한 삼매경험으로만 삶의 고뇌와 제행무상의 법을 통찰할 수 없겠지요.
▪ 2단계(돈오돈수) :
올바른 삼매 집중과 무위상태를 경험하는 단계로, 정확한 정심행처(正心行處)가 이루어지면 분별하는 마음은 쉬고 선심일체처(善心一切處)에 머무르게 되어 진아를 일별할 수 있습니다. (약 5일 소요)
▪ 3단계(돈오점수) :
보임 단계로 초기 견성을 했다고 하여도 이를 계속 유지하지 못한다면 완전히 번뇌를 여의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각자가 어떻게 수증(修證)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몫이 되겠지요. (2-3일 소요)

* 본 선원에서는 전통적인 禪에 입각하여 현대 서구 심리치료요법과 기타 치유기공 등 여러 명상법을 병행하여 수행자 개인에 맞춰 쉽게 그리고 1대 1로 전수합니다.
* 수행 총기간은 10일정도 소요되며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계속합니다. (지방이나 장거리에 계신 분들은 본 선원에서 숙박 가능).
* 수련비는 300만원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과 문의는 031-742-9859 으로 전화 주십시오.

은담명상체험교실 · 종익 합장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안녕 하세요
현대 결혼 연구원을 믿어주신 은혜
불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가 잠시 어려운 중에 있어서
불자님의 결혼을 돕기 위하여
12월부터 당분간 서류대 전화비조로
상담후 등록회비를 40%만 받겠습니다.
뜻 있으신 분은 등록하시어 결혼 시즌에
혼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기본 30만원의 회비를 받고 운영하였으나
12월 부터 다소의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
금액을 삭감하여 보시하는 마음 으로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정에 가득하시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大卒, 초 · 재혼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하차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입구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 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 02) 679-5902
연구실 : 032)679-5902
휴대폰 : 011) 288-2944

- 목초 수액 시트 -
발 건강법
자고나면 온몸이 상쾌해지는 새로운 발건강법!!
아침이상쾌해집니다

▲ 발바닥에 붙이고 하루 밤을 자고나서 수분(노폐물)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 발에 붙이면 온몸이 상쾌해지며 일본에서는 매일 1만명 이상이 애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심계 피로를 느끼시는 분
○ 항상 서서 근무하시는 분
○ 운동선수
○ 항상 몸 컨디션이 불편한 분
○ 가정주부

이런분들은 더욱 좋습니다
○ 산후조리, 시고 저린 손발 굳어진 근육, 어깨, 무릎 허리 등이 상쾌해 집니다.

❀ 부모님에 대한 최고의 효도선물!!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의약품이 아닙니다)
우체국 014092-06-011003 (예금주) 김건순
Tel. 02]455-6944, 02]453-5851